

## 固體飛跡檢出器의 特性과 그 應用

—CR-39에 의한 窒素이온 檢出과 線量測定—

慶北大學校 物理學科

姜 榮 浩

大邱大學校 物理學科

金 道 聖

### 초 록

Allyl diglycol carbonate(CR-39)에 照射된 60 MeV의 질소이온을 檢출하기 위한 최적부식 조건을 부식시간에 대한 비적밀도와 비적직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70°C, 20% NaOH 용액에 대해 부식시간 130분으로 정하였다. 이 조건에서 檢출가능한 최대비적밀도는  $1.7 \times 10^7 \text{ tr/cm}^2$ 였으며 入射된 질소이온의 총전하량의 증가에 따라 비적밀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. 또한 2 μm의 금박에 의한 질소이온의 산란을 點線源에 의한 Rutherford 산란으로 고려함으로써 측정된 상대산란확률이 이론치와 일치하여 선량측정이 가능하였으며 12nC~100 nC의 入射 질소이온의 전하에 대해 54~41%의 檢출효율을 얻었다.

### 서 론

固體飛跡檢出器는 대부분의 유전체가 荷電粒子의 통과로 인한 방사선손상을 飛跡으로 기록하며 이 飛跡이 적절한 화학용액으로 腐蝕되어 확대됨으로 광학현미경 정도의 배율로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리로 한다<sup>1,2)</sup>.

일반적으로 2,000 Ω·cm 이상의 비저항을 갖는 반도체나 운모, 수정등의 결정체, 플라스틱등의 중합체와 같은 대부분의 유전체는 荷電粒子의 飛跡을 檢출할 수 있다<sup>3)</sup>. 이러한 固體飛跡檢出器는 β線이나 γ線이 함께 하는 혼합장에서 荷電粒子만을 선택적으로 檢출할 수 있으며, 플라스틱 飛跡檢出器는 光學的 투명도와 에너지 분해능이 높으므로 飛跡運動學(track kinetics), 입자판별, 入射粒子의 위치검출등의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<sup>4,5,6)</sup>.

특히 allyl diglycol carbonate(CR-39)는 최근에 cartwright 등에 의하여 개발된 비적검출재료로서<sup>7)</sup>,

\* 이 논문은 1984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.

광학적 투명도와 등방·균질성이 높은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 $0.7 \times 10^{-3} \text{ MeV} \cdot \text{cm}^3/\text{g}$ 의 매우 낮은 이온화임계치를 가지므로<sup>8)</sup> 重이온뿐만 아니라 輕이온의 檢출에도 매우 효과적이다. 이러한 CR-39는 高에너지의 重粒子 檢出과 線量測定<sup>9)</sup>, 宇宙線研究<sup>10)</sup>, 核反應研究<sup>11)</sup>, 中性子檢出等<sup>12)</sup>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. 또한 He으로부터 U에 이르는 重이온에 의한 박테리아 포자의 不活性化(inactivation)의 연구에서 CR-39와 같은 플라스틱 飛跡檢出器에 의해 측정된 入射 重이온의 위치와 照射된 重이온의 量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<sup>13,14,15)</sup>.

본 연구에서는 사이크로트론에서 가속된 60 MeV의 N이온을 CR-39로 檢출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여, N이온의 탄성산란을 고려하여 照射된 N이온의 量과 檢출되는 飛跡密度와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CR-39에 의한 重이온 檢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.

### 실험장치 및 방법

본 실험에서는 일본 理化學研究所(RIKEN)의 사이크로트론에서 가속된 60 MeV의 N이온을 CR-39에 照射하였다. Fig. 1은 N이온을 照射하기 위한 산란함의

## 60MeV N-Ions from Cyclotr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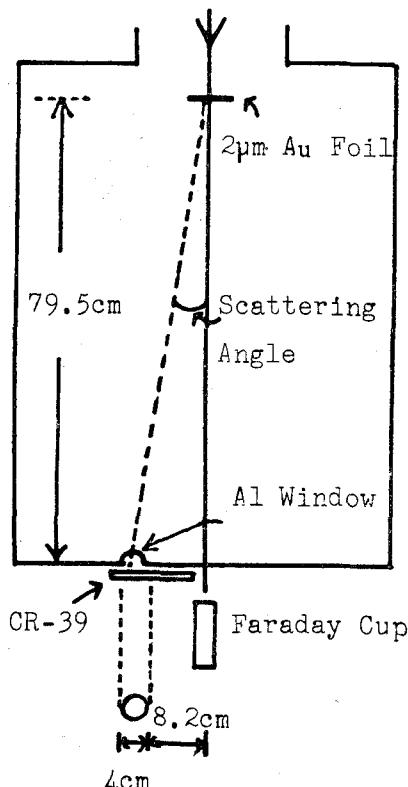


Fig. 1. Schematics of N-ion irradiation

개형이다. 산란함은  $\sim 10^{-6}$  torr로 진공을 유지하고 2  $\mu\text{m}$ 의 금박을 scattering foil로 하여 入射 N이온을 산란시켰으며, 산란함의 뒷쪽에는 Faraday Cup을 설치하여 入射 N이온의 총전하를 측정하였다.

CR-39는 산란함의 Al window의 뒷면에 설치하였으며 Scattering foil과 CR-39와의 거리는 79.5 cm였다. 직경 4 cm의 구형 Al window는 N이온 빔의 중심으로부터 10.2 cm에 그 중심이 위치하므로 CR-39에 의하여 실험실계의 산란각  $4.8^\circ - 8.7^\circ$ 에서 산란되는 N이온을 검출할 수 있었다. 또한 照射된 N이온의 양과 각 산란각에서의 飛跡密度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12 nC, 30 nC, 50 nC, 100 nC의 60 MeV N이온을 각각 照射하였다.

본 실험에서는 1.7 mm의 CR-39(Solar Optical Japan Co.)를 사용하였으며 이의 物理化學的 特性은 Table 1과 같다<sup>8)</sup>.

N이온이 照射된 CR-39는 70°C의 20% NaOH 용액으로 化學腐蝕하고 腐蝕時間에 따른 N이온의 비적점

Table 1.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R-39

Chemical Composition	$\text{C}_{12}\text{H}_{18}\text{O}_7$ (allyl diglycol carbonate)
Specific Gravity	1.32(25°C)
Index of Refraction	1.504( $n_P$ ), 1.501( $n_C$ ), 1.510( $n_F$ )
Transmissivity of Light	89~92% (for 1/4 inch thickness)
Absorption of UV	15~20% (for 1.7 mm thickness)
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( $\text{cm}/^\circ\text{C}$ )	$8.1 \times 10^{-5}$ (-40—+25°C)
	$11.4 \times 10^{-5}$ (-25—+75°C)

출 특성을 조사하였으며, 化學腐蝕된 飛跡은 400배 광학현미경으로 활용한 현미경 사진으로 부터 飛跡의 特性과 飛跡密度를 측정하였다.

## 결과 및 고찰

## A) 飛跡檢出特性

Fig. 2는 CR-39를 70°C, 20% NaOH 용액으로 화학부식한 60 MeV N이온비적의 부식시간의 증가에 따른 상대비적밀도의 변화이다(상대비적밀도는 부식시간 130분에서의 비적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). 40분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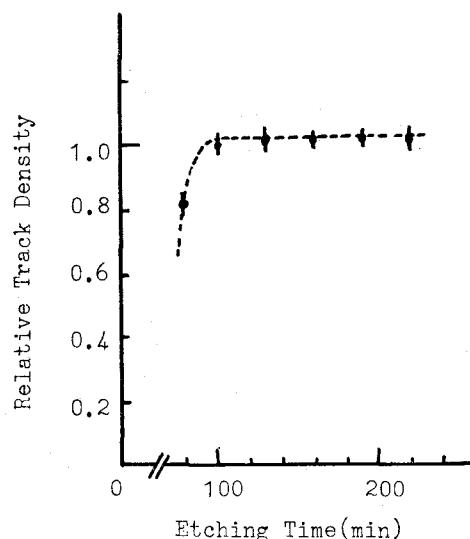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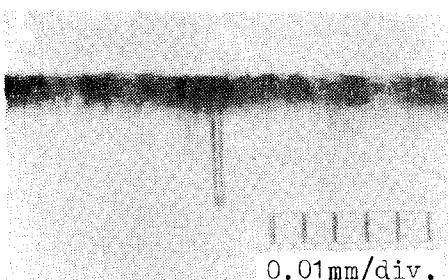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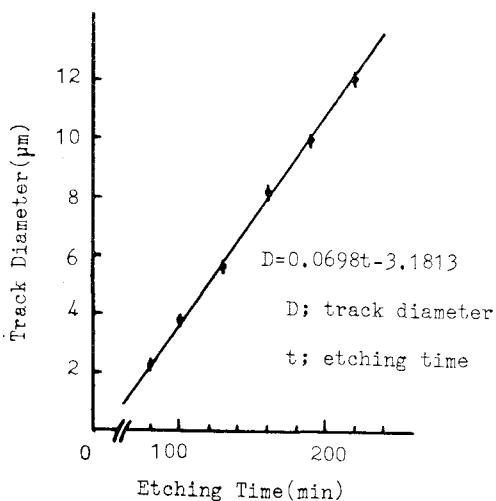


Fig. 2. The variation of relative track density due to the increase of etching time, etched with 70°C, 20% NaOH



**Photo. 1.** Track profile of 60 MeV N-ion in CR-39, etched for 100 min with 70°C, 20% NaOH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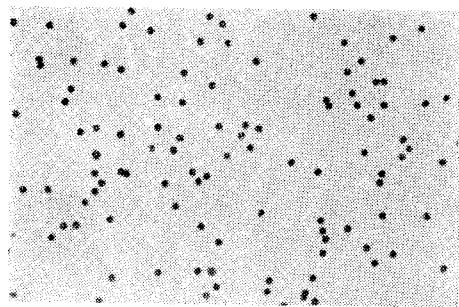


**Fig. 3.** The variation of track diameter due to the increase of etching time, etched with 70°C, 20% NaOH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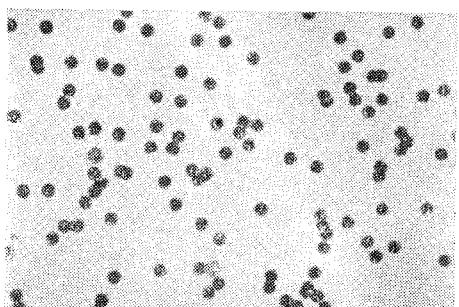
의 부식에서는 飛跡을 관측할 수 없었으며 100분 이상의 부식에서 飛跡密度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.

Photo 1은 70°C의 20% NaOH 용액으로 100분간 부식한 N이온 비적의 단면(track profile)으로써 CR-39를 microtome으로 절단하여 견출기의 측면을 촬영한 것이다. 이때 비적직경은 3.9 μm, 부식된 비적의 길이(track length)는 28.5 μm였으며 이러한 비적단면에 관한 정보는 입자판별과 에너지분해에 이용될 수 있다<sup>[16]</sup>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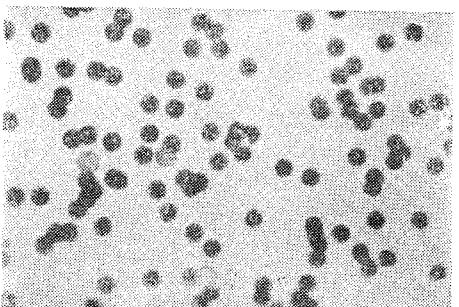
Fig. 3은 부식시간(t)의 증가에 따른 비적직경(D)의 변화로서, 부식시간의 증가에 따라 비적직경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최소자승법으로 직선으로 fitting 한 결과  $D(\mu\text{m}) = 0.0698 t(\text{min}) - 3.1813$ 이었다. 사진 2는 CR-39의 동일 견출부분에



(a)



(b)



**Photo. 2.** Increase of track diameter of N-ions in CR-39, etched for (a) 100 min, (b) 160 min and (c) 220 min with 70°C, 20% NaOH.

서 촬영한 부식시간에 따른 비적직경의 증가이며 160분 이상의 부식에서 입의적으로 분포된 飛跡이 겹쳐져 으로 중첩됨을 알 수 있다.

따라서 CR-39에 의하여 60 MeV의 N이온을 견출할 때 비적밀도의 변화와 비적의 중첩, 비적계수의 평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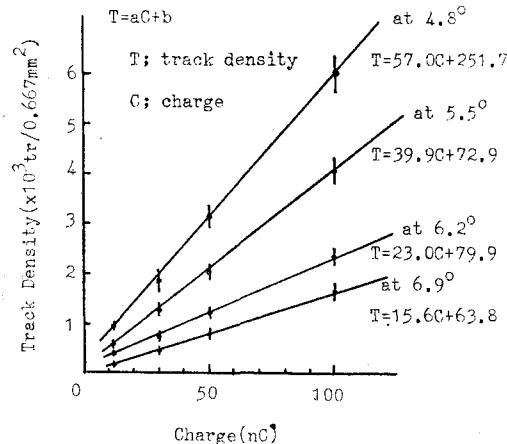


Fig. 4. The variation of track density due to the total charge of incident 60 MeV N-ions at each scattering angle

Table 2. The calculated and measured relative scattering probability of 60 MeV N-ions by 2 um Au foil

Scattering Angle(°)	Relative Scattering Probability	
	calculated	measured
4.8	2.78	2.47 ± 0.19
5.5	1.61	1.73 ± 0.19
6.2	1.00	1.00
6.9	0.65	0.68 ± 0.16

성을 고려하여 70°C, 20% NaOH 용액에서 부식시간 130분을 최적조건으로 결정하였다. 본 실험에서의 모든 CR-39는 이 조건에서 화학부식하였으며 또한 이 조건에서 비적의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비적직경이 약 5.9 μm로써 중첩되지 않는 최대비적수로 부터 측정 가능한 최대비적밀도는  $1.7 \times 10^3 \text{ tr/cm}^2\text{s}^{-1}$ 을 알 수 있다.

### B) 線量測定

Fig. 4는 측정된 산란각에서의 入射 N이온 총전하에 대한 飛跡密度의 변화이다. 入射 N이온의 총전하량(c)의 증가에 대해 飛跡密度(T)는 모든 산란각에서 선형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을 최소자승법에 의해 직선으로 fitting 하여 산란각 6.9°에서  $T = 15.6 \text{ C} + 63.8$ , 6.2°에서  $T = 23.0 \text{ C} + 79.9$ , 5.5°에서  $T = 39.9 \text{ C} + 72.9$ , 4.8°에서  $T = 57.0 \text{ C} + 251.7$ 을 얻었다. 이때 각 직선의 기울기의 비는 2 μm 금박에 의한 N이온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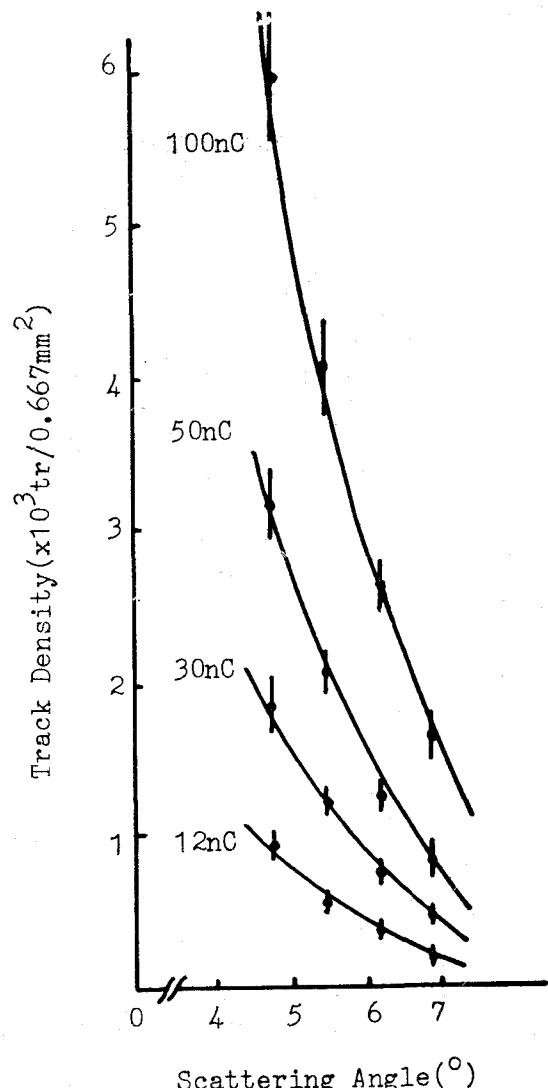


Fig. 5. The variation of track density at the various scattering angles (Indicated values are total charge)

상대산란확률을 나타낸다.

한편 Fig. 1에서의 산란장치에서 2 μm의 금박에 의한 N이온의 산란을 點線源에 의한 단일 Rutherford 산란으로 고려하면 산란확률  $P$ 는 산란각  $\theta$ 에서

$$P \propto \frac{1}{\sin^4(\theta/2)} \quad \dots \dots \dots \quad (1)$$

이다<sup>17)</sup>.

Table 2는 (1)식으로 계산한 상대산란확률과 飛跡密度로부터 측정한 상대산란확률이다(상대산란확률은 점출기의 중심인 산란각 6.2°에서의 산란률을 기준으

Table 3. The detection efficiency of CR-39 for 60 MeV N-ions scattered at the angle of 6.2° by 2 μm Au foil

Charge (nC)	Track Density (tr/0.667mm <sup>2</sup> )		Efficiency (%)
	Calculated	Measured	
12	807	434	54
30	2,018	846	42
50	3,363	1,400	42
100	6,727	2,725	41

로 하였다). 측정된 상대산란률은 오차범위 내에서 이론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. 또한 Fig. 5는 각각의 입사된 N이온의 총전하에 대한 산란각( $\theta$ )에서의 비적밀도( $T$ )의 변화로서  $T \propto 1/\sin^4(\theta/2)$ 의 관계를 가지므로 (1)식의 관계를 잘 만족하였다.

한편 60 MeV의 N이온의 유효전하는 6.53으로서<sup>18)</sup> 1 nC의 N이온의 전하에 대해

$$1 \text{ nC} = 9.56 \times 10^8 \text{ particles} \quad \dots \dots \dots (2)$$

이다. 그리고 N이온의 탄성산란을 고려하면 산란각 6.2°에서의 이론적인 산란입자의 수는 1 nC의 N이온에 대해

$$1 \text{ nC} = 76.684 \text{ particles}/0.667 \text{ mm}^2 \quad \dots \dots \dots (3)$$

이다(이때 0.667 mm<sup>2</sup>는 CR-39에서의 겹출면적이다).

Table 3은 산란각 6.2°에서의 N이온의 탄성산란에 의한 이론적인 비적밀도와 측정된 비적밀도로서 겹출효율은 12 nC~100 nC의 입사 N이온의 전하에 대해 54~41%였다. 이것은 CR-39 겹출기 자체의 겹출효율의 제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란함의 Al window에서의 2차적인 산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scintillation 겹출기에 의한 측정결과와 거의 일치한다<sup>19)</sup>.

## 결 론

CR-39에 겹출된 60 MeV의 N이온의 비적률은 70°C, 20% NaOH 용액으로 화학부식하여 비적밀도는 부식시간 100분 이상에서 거의 일정하였으며 비적직경(D)은 부식시간(t)의 증가에 따라  $D(\mu\text{m}) = 0.0698 t(\text{min})^{-3.1813}$ 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였다. 따라서 飛跡密度와 비적직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CR-39에 의한 60 MeV N이온 겹출의 최적부식조건을 70°C, 20% NaOH 용액에 대해 부식시간 130분으로 결정하였다.

또한 照射된 N이온의 총전하량(C)의 증가에 따라 비적밀도( $T$ )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산란각 6.2°(겹출기의 중심)에서  $T = 23.0 C + 79.9$ 의 관계를 보였다. 그

리고 2 μm의 금박에 의한 N이온의 산란을 點線源에 의한 Rutherford 산란으로 고려하므로서 산란각에 대한 비적밀도의 변화가 이론치와 잘 일치하여 선량측정이 가능하였다. 본 실험에서의 조건에서 CR-39의 겹출효율은 12 nC~100 nC의 60 MeV의 N이온의 전하에 대해 54~41%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重이온 檢出과 重이온에 의한 생물체 세포의 不活性化등의 연구와 비적단면(track profile)에 의한 입자판별과 에너지분해능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.

본 연구의 수행에 많은 도움과 助言을 주신 일본 理化學研究所 사이크로트론研究室과 高橋 且博士께 심심한 謝意를 表합니다.

## 참 고 문 헌

- 1) R.L. Fleischer and P.B. Price, Science, **140**, 1221(1963)
- 2) R.L. Fleischer, P.B. Price and R.M. Walker, Nuclear Tracks in Solids, U. California Press (1975)
- 3) R.L. Fleischer, et al., J. Appl. Phys., **36**, 3645 (1965)
- 4) R.L. Fleischer, Nucl. Instru. Meth., **147**, 1 (1977)
- 5) G. Somogyi, et al., Nucl. Instru. Meth., **147**, 11(1977)
- 6) K.K. Dwivedi and S. Mukherji, Nucl. Instru. Meth., **161**, 317(1979)
- 7) B.G. Cartwright, E.K. Shirk and P.B. Price, Nucl. Instru. Meth., **153**, 457(1978)
- 8) T. Hayashi, Oyo Butsuri, **49**(7), 705(1980)
- 9) M. Schafer, H. Bücker, R. Fabius and D. Hildebrand, Proc. 9th Int. Conf. on SSNTD, Neuherberg, Vol. II, 1291(1977)
- 10) T. Hayashi, R. Hamasaki and T. Doke, Nucl. Tracks, **6**(1), 1(1982)
- 11) Y.H. Kang, C.K. Ahan and D.S. Kim, Res. Rev. Kyungpook Nat'l Univ. **37**, 19(1984)
- 12) A.U. Haque, C.B. Besant and B.W. Hooton, Nucl. Instru. Meth., **197**, 435(1972)
- 13) T. Takahashi, et al., RIKEN Acc. Prog. Rep. **17**, 116(1983)
- 14) M. Schäfer, R. Fabius and H. Bücker, Proc. 10th Int. Conf. on SSNTD, Lyon, 1055(1979)

- 15) M. Schäfer, R. Fabius, K. Beltschkat and H. Bücker. 7 th Sym. on Microdosimetry, 89(1980)
- 16) R.L. Fleischer et al., Science, 181, 436(1973)
- 17) J.B. Marion and F.C. Young, Nuclear reaction Analysis, North Holland (1968)
- 18) J.W. Mayer and E. Remini, Ion Beam Handbook for Material Analysis, Academic Press (1979)
- 19) T. Takahashi and F. Yatagai, Private Communication.

###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s

—The Detection and Dosimetry of N-Ions by CR-39—

**Yung-Ho Kang**

*Dept. of Physics,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*

**Do-Sung Kim**

*Dept. of Physics, Daegu University*

#### =Abstract=

The optimum etching condition of allyl diglycol carbonate (CR-39) for detecting the 60 MeV N-ions was determined as 70°C, 20% NaOH for 130min, by considering the variations of track density and diameter. Under these conditions, the maximum detectable track density was  $1.7 \times 10^7 \text{ tr/cm}^2$ .

Track densities were linearly increased with increase of the total charge of the incident 60 MeV N-ions. By considering the scattering of N-ions as the Rutherford elastic scattering of point source, the measured relative probability was well consistent with the calculated value. The detection efficiency of CR-39 was in the range of 54-41% for 60 MeV N-ions of 12 nC-100 nC.